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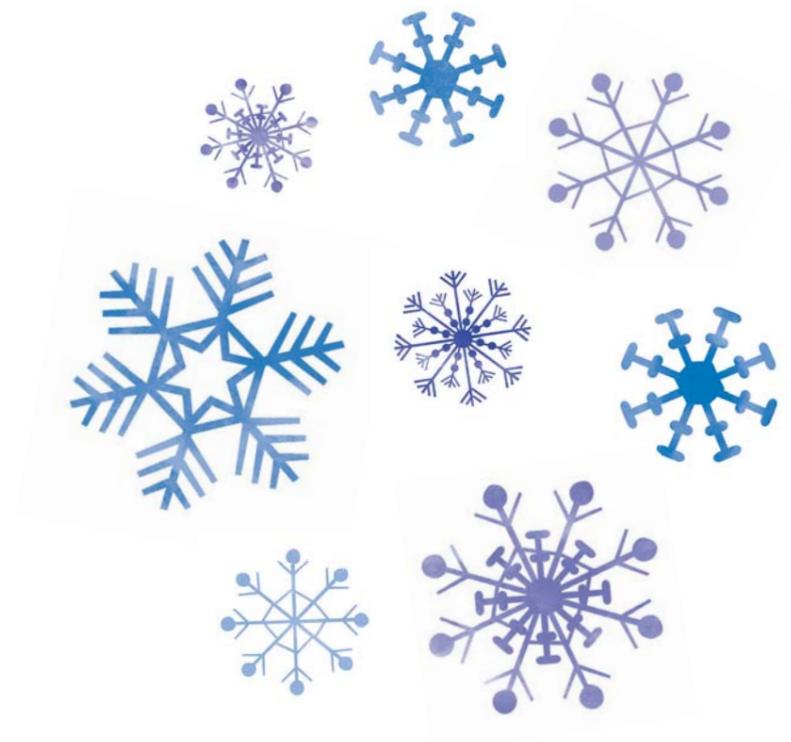
처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로 다가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새하얗게,
 포근하게 감싸 안는 첫 눈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처음에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눈처럼 맑고 순수한 세상,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꿈꾸는
국민행복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국민권익 11+12 2014 vol.41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국민 권익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4
 11+1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당신의 양심에 + 양심을 더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교량 부실 시공, 폐기물 불법매립, 유사 석유 판매, LPG 가격담합 등



국민 권익

국민권의 보호, 신뢰받는 정부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4 11+12 vol.41

발행일 2014년 12월 11일(격월간, 비매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이성보 편집인 권근상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화 044,200,7075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www.eepop.co.kr

CONTENTS

● **테마기획 - 국민행복을 꿈꾸는 새하얀 첫 눈**

- 04 **테마 스토리** _ 국민행복을 위한 일 년간의 노력
- 08 **테마 포커스** _ 640개 공공기관의 평균 청렴도 7.78점
- 10 **테마 인포** _ 빅데이터로 국민의 피해와 갈등을 조기 해소

○ **희망전하기**

- 12 **국민권의 이야기** _ 생이별한 발달장애 연인에게 혼인신고 지원
- 16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_ 구멍 뚫린 정부 공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로 막는다
- 20 **소통의 창** _ 여러분의 응원이 따스한 연탄 한 장으로!
- 22 **국민행복제안센터** _ '건강한 식탁'을 위한 건강한 아이디어

○ **권익더하기**

- 24 **국민권이 간다** _ 미래 우리사회의 청렴, 아이들에 달렸다
- 28 **글로벌 ACRC** _ 범아시아 국민권익 향상의 첫 발을 내딛다
- 30 **국민권의 Q&A** _ 한 눈에 보는 국민권의 주요 사례
- 32 **110 행복레시피** _ 효도하기 힘듭니다!

○ **행복나누기**

- 34 **타박타박 힐링여행** _ 눈이 있어 눈이 즐거운 곳, 설국으로 초대
- 38 **감성충전소** _ 전설을 가진 농촌 마을 여행
- 40 **스포츠 인사이드** _ 뜨거운 유럽 축구, 뜨거운 코리안 유럽파
- 42 **건강 다이어리** _ 지루한 겨울, 입맛 달래주는 건강 간식
- 44 **청렴 오디세이** _ 공직자의 표상, 청렴의 아이콘
- 46 **꼭 알아두세요!** _ 월급처럼 월세지원 받는 '주거급여'
- 48 **뉴스&피플** _ 범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외
- 50 **행복우체통** _ 독자사연&퀴즈



2014년 권익위 주요뉴스 국민행복을 위한 일 년간의 노력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저물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달려 왔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권익위는 그동안의 성과와 실적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4년 권익위의 주요 활동과 소식들을 총정리했다.



국민행복제안센터 개소 1주년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의 장, 국민행복제안센터가 지난 5월 6일 개소 1주년을 맞았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아이디어와 개선을 원하는 제도가 있을 때 국민 누구나 직접 제안과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다. 지난 1년 동안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10만 8,617건에 달하며, 제안된 아이디어 중 3,774건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858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관계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권익위는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옴부즈만과 국민의 삶, 그 역동적 관계'라는 주제로 세계 12개국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석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익위 이정보 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참가했으며,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 옴부즈만 권익위의 역할 및 가치를 소개해 참가국들의 많은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냈다.

우륵교 차량통행 관련 집단갈등 중재

차량통행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던 '우륵교의 차량통행 문제'가 권익위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우륵교는 2011년 준공 시부터 차량 통행을 요구하는 고령군과 이를 반대하는 달성군 사이에 갈등이 계속됐다. 권익위는 대립의 근원이 도로망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에 있음에 주목,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광역도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인 관계자들과 함께 9월 11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를 성사시켰다.

실손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범위 개선 권고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방 의료비 중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상」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됐다. 권익위는 지난 7월 15일 치료목적이 분명한 시술(약침), 추나요법 등에 대한 한방 의료비, 한방병원 입원 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도록 하는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고, 진료내역서 처방내용에 한약제 주성분 및 치료행위를 명기하여 표준화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에 권고했다.



정부콜센터 대표번호 110 단일화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기상청 등 총 11개 부처 콜센터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단일화됐다. 지난 9월 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110 단일화 출범 기념식에는 콜센터 관계자 및 관계부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연간 600만 여건에 달하는 정부민원을 단일번호 110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됐으며,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대국민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인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지난 9월 3일 출범식을 갖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장정에 올랐다. 2008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해산된 후 6년 만에 38개 정부와 시민사회, 직능단체 등이 다시 힘을 합친 것이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이날 '청렴국가, 투명한 사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출범선언문을 채택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권익구제와 부패관행 일소를 위한 3개 법안 입법 추진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부패 관행을 일소하기 위해 3개 법안 입법을 적극 추진했다.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등이 세 가지 법안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 등을 거쳐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앞으로 권익위는 세 가지 법안의 성공적인 입법화를 통해 국민권익을 더욱 증진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복지부정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성과

복지 예산의 부정수급을 막아 효과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 통합 신고센터인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지난 10월 15일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수에 일원화된 대응체계가 없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복지부정신고센터 운영 1년 만에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첩·송부한 건수는 총 170건으로 모두 환수하면 330억 6,700만 원에 달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청구 서비스 개시

지난 2월 3일 7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됐다. 전국 7개 행심위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과 행심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업무 담당자들도 행정심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청렴연수원 '청렴콘서트' 인기

권익위 청렴연수원의 「청렴콘서트」가 청렴교육의 새로운 문화적 접근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청렴콘서트」는 '청렴'이라는 다소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문화 공연과 접목하여 공직자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하고, 친근한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공직자의 상황극, 공연, 각종 청렴교육 영상 등을 융합하여 재미와 감동을 느끼면서 동시에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종전 교육의 '지루하다, 뻔하다, 졸리다'라는 선입견을 깨고 즐겁고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한 해 동안 약 1만여 명의 공직자가 「청렴콘서트」를 통해 청렴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을 마친 공직자들은 종전과는 달리 색다른 방식으로 재미를 선사한 「청렴콘서트」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3년 성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해치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사회위험의 조기발견과 예방은 물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첫 해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1,153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2,876건, 올해는 11월까지 8,702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파파라치)에게 집중되어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 상한선을 마련했다.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연 1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640개 공공기관의 평균 청렴도 7.78점

지난 12월 3일 권익위가 실시하는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지난 해와 대비해 0.08점 하락했다. 올해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등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세월호 사건이 청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 전년 대비 소폭 하락

매년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은 외부와 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에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평가한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5만 3,819명에 달한다. 외부청렴도 평가에는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 있는 국민 17만 6,081명, 내부청렴도 평가에는 소속직원 5만 6,701명, 정책고객 평가에는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지역민, 학부모 등 2만 1,037명이 참여했다.

청렴도 측정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간 실시됐으며, 그 결과 공공기관 평균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나타났다. 2013년 7.86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결과다. 외부·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하락했을 뿐 아니라, 부패사건 감점도 늘어나 종합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이다. 설문결과와 하락은 과다한 강의로 제공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을 개선하여 부패경험 응답을 이끌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은 명확히 드러난다. 2013년과 비교

해서 지난 1년간 민원인이 평가한 알선·청탁 등 부패인식은 8.95점에서 9.07점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 등 투명성은 8.37점에서 8.44점으로,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등 책임성은 8.23점에서 8.32점으로 나타나 책임성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0.7%에서 1.7%로,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은 6.2%에서 7.7%로,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도 6.6%에서 6.8%로 증가하는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이다.

통계청, 새만금개발청, 경기도 등 청렴도 상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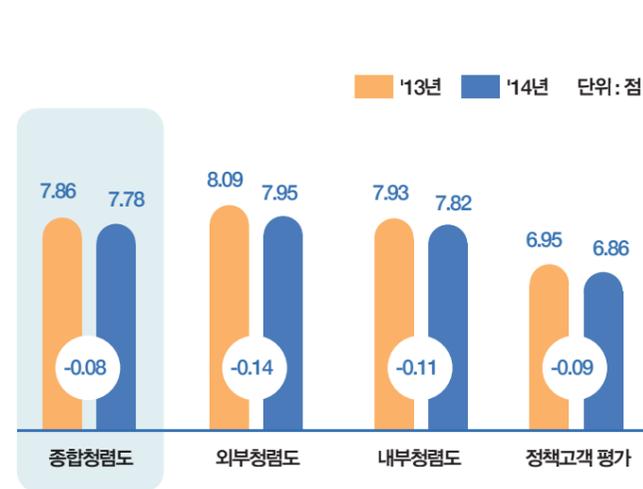
기관별 청렴도 결과에는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분류에 정원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정원 2,000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통계청이, 2,000명 미만인 기관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오산시, 강

원 인제군, 서울 강동구가,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각각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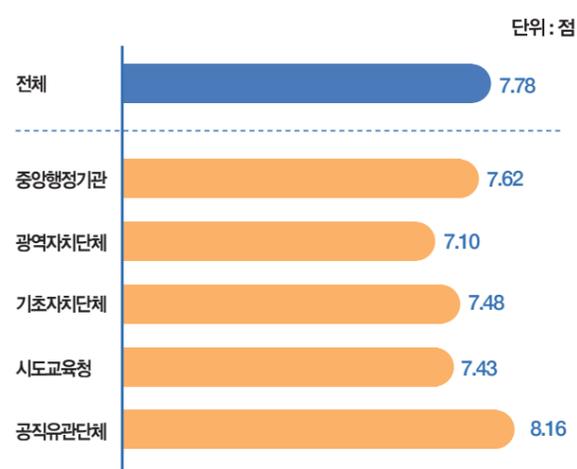
공직유관단체 정원 2,300명 이상인 단체에서는 한전 KPS, 1,000명~2,300명인 단체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 300명~1,000명인 단체에서는 한국감정원, 150명~300명인 단체에서는 한국투자공사, 150명 미만인 단체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방공사 중에서는 경기관광공사, 지방공단 중에서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연구원 중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았다.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우수기관의 수범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확산시킴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또 공공기관 대상 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해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청렴도 측정에 반영하는 노력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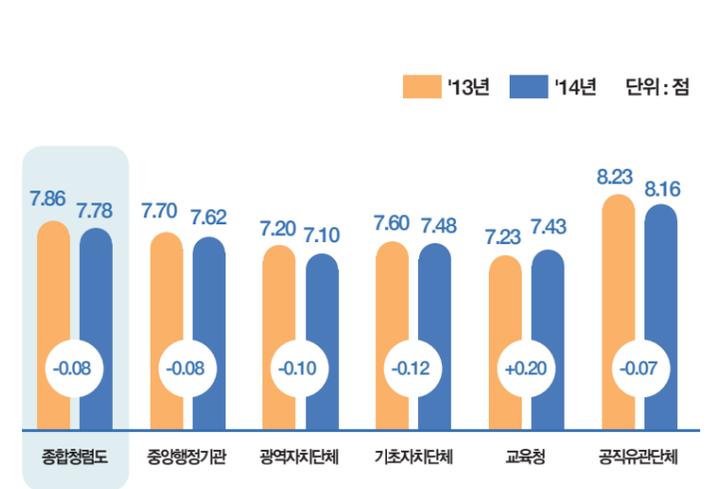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 (2013~2014)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비교 (2013~2014)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빅데이터로 국민의 피해와 갈등 조기 해소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란?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범정부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 국민 피해와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경보를 발령하는 조기 대응체제를 말한다. 민원 양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거나 사회적인 갈등으로 발전할 요소가 있는 민원을 미리 해당 기관에 알림으로써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매체에도 널리 알려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도입, 시행했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3단계 경보 프로세스

단계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심각
상황	- 집단민원 조짐 - 피해사례 다수 발생	- 민원확산 징후 - 피해사례 지속 증가	- 급격한 민원확산 - 피해규모 확대
발령기준	- 피해·특이: 주 30건 초과 - 갈등민원: 주 50건 초과	- 피해·특이: 주 100건 초과 - 갈등민원: 주 200건 초과	- 피해·특이: 주 200건 초과 - 갈등민원: 주 400건 초과
		- '관심' 발령 후 2주 이상 지속 증가 시 발령	- '주의' 발령 후 2주 이상 지속 증가 시 발령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성과

50% 민원감소기간 단축

조기경보 발령 후 해제까지 경보 지속기간은 평균 2.5주로, 과거 유사한 사례가 평균 5.2주 걸리는데 비해 해결 시간이 절반 이상으로 단축되었다.

88.9% 정책활용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 차단, 집단갈등 해결 등이 이뤄질 수 있었으며,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 업무절차 개선 등 소관기관의 정책 활용률은 88.9%에 달했다.

54억 원 사기피해 차단 기대효과

신중 사기피해 등이 발생할 때 미리 경보를 발령해 관계기관에서 적극 대응해 피해 확산을 막았으며, 이를 통한 국민손실감감소효과는 연 54억 원으로 추산된다.

2.5조 원 집단갈등 해결 기대효과

집단갈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 간 공조·협력을 통해 집단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사회갈등비용절감효과는 연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생이별한 발달장애 연인에게 혼인신고 지원

사랑해 사랑해

밤눈이 까맣게 내렸다. 스웨터 속까지 눈이 파고 들었다. 서정 씨는 잔뜩 움츠리고 걸었다. 발이 시렸다. 신발은 어디 가고 수면양말 뿐이다. 양말에 눈이 달라붙어 무거웠다. 자주 벗겨지려해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허리를 숙여 잡아당겼다. 신발을 찾으려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버스정류장을 찾아야 한다. 눈 오는 날 정류장을 찾아 헤매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특히 서정 씨에겐 그렇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에서 사랑을 키워간 두 사람

서정 씨는 지적장애 2등급이다. 기억력도 사고력도 보통 사람들보다 떨어진다. 장애인복지시설 희망원이 서정 씨의 집이다. 청소함에서 청소도구를 꺼내 방을 쓸고 닦고,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급식을 받고, 설거지 당번이 돌아오면 설거지를 하고, 작업시간엔 정해진 순서에 따라 풀을 칠해 봉투를 만든다.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서른 세 살이 되도록 할 줄 아는 게 그 뿐이다. 혼자서 주복 씨의 집을 찾아가는 일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더구나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주복 씨 생각도 안 났을 것이고, 서정 씨 몸이 그렇게 뜨거워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눈은 낮부터 내렸다. 서정 씨는 가슴이 뻘뻘했다. 덥고 목이 말랐다. 소등 시간이 한참 지났다. 같은 방을 쓰는 정희 아줌마와 수연이는 깊은 잠에 빠졌다. 덥지 않느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다. 주복 씨는 뭘 하고 있을까. 선생님이 생각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만 생각났다. 주복 씨 얼굴을 지우려 이불을 뒤집어썼다. 점점 더 몸이 뜨거워졌다. 심장이 타버릴 것 같았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서정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얀 눈이 서정 씨의 머리 위로 폭폭 쏟아졌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쌓인 눈 때문에 초록색 지붕을 못 알아볼 뻔했다. 서정 씨는 벤치에 앉아 100번 마을버스를 기다렸다. 스웨터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주머니 속엔 850원이 들었다. 마을버스는 850원이다. 주복 씨한테 가려면 850원이 필요하다. 서정 씨는 주머니 속 동전을 꼭 쥐었다. 주복 씨가 넣어준 돈이다.

주복 씨는 마흔 다섯 살이다. 서정 씨와 같은 지적장애 2등급이다. 두 사람은 전주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함께 있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붙어 다녔다. 밥도 같이 먹고 작업도 같이 했다. 아침에 기상해서 소등 시간 직전까지 주복 씨는 서정 씨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서정 씨가 아프면 밤새 잠을 못 자고 복도를 서성였다. '사랑해, 사랑해' 이 말 밖에 할 줄 몰랐다.

사랑하는 주복 씨만 옆에 있으면

두 사람이 헤어진 건 3년 전이다. 함께 지내던 복지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서다. 서정 씨는 희망원으로 보내졌고 주복 씨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독립하게 됐다. 헤어지는 날 두 사람은 영영 울었다. 주복 씨는 서정 씨를 자주 보러 왔다. 그때마다 서정 씨는 울었다. 주복 씨는 서정 씨를 달래며 속삭였다.

“100번 마을버스, 850원, 일곱 번째 버스 정류장.”

버스에서 내리면 주복 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머니에 850원도 넣어줬다. 밤이나 낮이나 서정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을 만지작거렸다.

버스가 느릿느릿 모퉁이를 돌아왔다. 100번 마을버스다. 주복 씨 말 대로 버스가 왔다. 서정 씨는 버스에 올라타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버스기사가 빨리 타라며 재촉했다. 손이 얼어서 동전이 잘 잡히지 않았다.

“에이!”

버스기사가 짜증을 냈다. 서정 씨는 동전을 하나씩 꺼내 요금통에 넣었다. 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서정 씨는 내리는 문 바로 옆에 앉았다. 수면 양말에서 물이 흘러 나왔다.



버스는 정류장마다 서지 않았다. 눈이 오는 한밤중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안내 방송도 건너뛰었다. 서정 씨는 혼란스러웠다. 몇 번째 정류장인지 알 수 없었다. 일곱 번째 정류장을 놓치면 주복 씨를 만날 수 없게 된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세상 천지에 하얀 눈뿐이다.

눈이 오는 날 서정 씨는 프리포즈를 받았다. 주복 씨는 꽃다발과 반지도 사왔다. 서정 씨 앞에 무릎까지 꿇었다.

“서정 씨, 결혼해 주세요.”

배운 것만 할 줄 아는 주복 씨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는지 신기했다.

“네.”

서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복 씨가 하자는 대로 하면 뭘 해도 좋았다. 결혼해서 주복 씨와 같은 집에서 살고 싶었다. 아이도 낳고 살림도 하고 싶었다. 배우면 뭐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복 씨만 옆에 있으면.

결혼할 권리가 없는 두 사람

두 사람은 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복 씨에게 프리포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복지사 선생님이었다. 두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선생님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선생님은 뭐든 다 아니까, 결혼도 문제없을 거라고 서정 씨는 생각했다.

뜻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지적장애인끼리 결혼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복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양가 부모님의 결혼 승낙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서정 씨의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승낙했다. 하지만 주복 씨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 누나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지사 선생님이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줬다. 서정 씨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저, 서정 씨는 남자를 사랑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아서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로만 들었다. 위험하니까. 지적장애인이 사랑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서정 씨는 정류장을 놓칠까봐 창 밖만 훑어지게 바라봤다. 눈부시게 하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하얀 드레스 자락처럼 땅 위에 드리워졌다. 서정 씨를 태운 버스는 하얀 드레스 자락 위를 끝없이 달리고 있었다.

저 멀리 버스정류장에 우뚝 선 사람이 보였다. 하얀 눈을 뒤집어쓰고 눈사람처럼 서 있는 사람. 서정 씨는 벌떡 일어나 버스 문을 탕탕 쳤다. 버스기사가 무슨 일이나고 소리쳤다. 서정 씨는 너무 급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울면서 문을 탕탕 쳤다. 버스가 멈췄다.

주복 씨였다. 주복 씨가 약속대로 버스정류장에서 있었다.

주복 씨는 서정 씨를 업고 집으로 갔다. 복지사 선생님이 서정 씨가 없어진 걸 알고 혹시나 싶어 주복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다. 주복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버스정류장으로 나가 내내 기다렸다고 했다.



사랑의 결실을 축복하는 새하얀 눈

주복 씨의 방은 따뜻했다. 주복 씨는 서정 씨가 잠이 든 후에도 발을 주물렀다. 밤새 주무르다 가슴에 껴안고 잠이 들었다.

“서정 씨, 잘 잤어?”

다음 날 선생님이 주복 씨 집으로 찾아왔다. 서정 씨는 주복 씨와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주복 씨도 마찬가지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선생님은 혼자 온 게 아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함께 왔다. 두 사람을 도울 길을 찾던 복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할 의사가 확실한 건가요?”

조사관의 말에 주복 씨와 서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고 계속 끄덕였다.

“결혼은 장애와 상관없이 자기 결정에 따라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복 씨와 서정 씨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결혼을 허락받든, 아니든, 누가 뭐래도 떨어지지 않을 생각이었다.

주복 씨와 서정 씨가 결혼하는 날에도 눈이 내렸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마치고 눈길을 걸어서 집으로 왔다. 하얀 눈길에 주복 씨와 서정 씨의 발자국이 나란했다.

Case Information

국민권익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남녀의 혼인신고를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혼인의사가 명백하고, 법률상 누구든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결정에 따라 혼인할 수 있으며,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지원해주도록 이들이 거주하는 전주시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구멍 뚫린 정부 곳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로 막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입법을 앞두고 11월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며 법안의 완결성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에 정비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철저한 환수와 징벌적 제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안이한 관행을 바로잡고 원천적인 근절을 이끌고자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새어나가는 공공재정을 막아라!

부패방지 전담 기구로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권익위는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정부 예산을 막고 관련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의 입법 배경에는 정부의 예산 확대로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와 그와 맞물려 늘고 있는 재정 누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만연하여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거의 모든 재정 분야에서 허위·부정청구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미했고, 악의적·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한 제제도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 역시 종합적으로 확립되지 않는 등 재정누수 관행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통해 공공재정 관련 부패를 근절하고 재정 누수를 막는 종합적인 법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863년 부정청구금지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이 마련되어 꾸준히 실행되고 있다. 남북전쟁 당시 연방보급품 구매과정에서 군수품업자들의 사기가 만연하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입안된 것으로 링컨 대통령이 도입하여 '링컨법(Lincoln Law)'으로 통한다. 부정청구금지법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민간이 정부계약이나 재정보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액의 15-30%의 신고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2012년 한 해 약 5조 2천억 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도 2013년 10월, 범정부차원의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해 1년간 729건의 접수를 처리, 부정하게 지급된 330억 원을 밝혀낸 바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과 관련된 환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환수를 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정비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철저한 환수와 징벌적 제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안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안이한 관행을 바로잡고 원천적인 근절을 이끌고자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 1 이번 토론회는 법안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2 인사말을 하는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 3 4 공공기관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고 국회에 법안제출을 준비 중이다





징벌적 환수와 신고자 보호제도가 핵심

공개 토론회의 문을 연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으로 “입법불비로 인한 재정낭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공공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계옥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일부 개별법에 환수 규정이 있지만 해당 사업에만 적용되고,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환수 근거를 따로 두어야 하는 등 구멍이 많아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반법 제정이 시급했다”고 운을 떼며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발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토론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송준호 홍사단 투명사회본부 공동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차장,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장, 이명선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장이 법안에 대한 다각도의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화한 사회에 부합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잡힌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의 취지에 심분 공감했다. 하지만 세부 법률 안에서 행정청과 공공기관의 개념이 함께 쓰이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부정청구의 다양한 사례 중 중대 과실이나 착오로 인한 행정처리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학자로서 합목적성 부문에 주목했다.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부패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일반법 제정으로 제도를 정비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 시기적으로 3년 째 세수 결손이 발생, 재정 개혁이 긴요한 시기에 새는 예산을 줄어보자는 제도적 정비의 시기가 좋다고 평가했다. 단,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범위가 더욱 넓게 가다듬어질 필요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이어 예산법률주의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법안인 만큼 빠른 것도 좋지만 더욱 세심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법안 되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시민의 입장에서 법에 대한 바람을 전한 송준호 홍사단투명사회본부 공동대표는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응 노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법안명을 단순화시킬 것을



5 토론회에는 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 홍준형 교수
7 8 각계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권익위는 앞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정부 예산을 막고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7

제안했다. 또 제재부가금 한도나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 제한 조건 등 각종 제재와 처벌 수위가 좀 더 강력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차장은 의도되지 않은 부정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과 환수 행정 절차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에 있어 언론 활용의 효과를 강조했다.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장은 인적인프라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투입되어 부패의 빌미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 마련은 반갑지만 이해단체가 된 민간의 저항도 클 것을 미리 예상해야 하며, 기존의 통제 중심의 규정이 비현실적이어서 암묵적으로 발생한 전용행위에 대한 선제적 고려가 있어야 마찰과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실효성 있게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안과 관련한 행정역량의 인프라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8

한편, 관계부처인 이명선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성격이 비슷한 국가재정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유사성과 중복성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정부부처 간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과도 협의가 필요하고, 창구단일화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전했다. 더불어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이 일반법으로서 다른 개별법을 배제하면 법 적용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음을 우려, 법 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권익위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법안이 실효성 있는 장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구체적, 실용적으로 다듬을 것을 약속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정부 예산을 막고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여러분의 응원이 따스한 연탄 한 장으로!

2014년의 막바지, 권익위가 일 년간 진행해 온 희망나눔 활동을 마무리했다. 바로 권익위 소식지 <국민권익>과 권익위 SNS를 통해 모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 많은 이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연탄을 권익위 직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 연탄으로 변신하다

북악산 자락의 능선을 타고 이어지는 한양성곽 아래,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북정마을이 때 아닌 인파로 북적인다. 각자 손에 목장갑을 끼면서 연탄과 지계를 챙기는 파란 점퍼를 입은 사람들,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아~ 연탄 정말 오랜만에 본대!” “이 지계로 옮기면 되는 거야?” 준비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권익위는 2014년 1월 소식지 <국민권익>을 통해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민권익>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는 애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애독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뜻으로 독자엽서 한 장마다 연탄 한 장을 기부하는 이벤트를 실시한 것이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앞으로 정성스럽게 의견을 적어 따뜻한 나눔 문화에 적극 동참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주어서 감사하다’, ‘애독자로서 그 연탄에 작은 힘을 보태는 불씨가 되겠다’ 등 전국 각지에

서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담

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SNS에서도

참여 이벤트를 실시했다.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페이스북과

연동해 ‘좋아요’를 누르면 연탄 한 장이 기부되도록 한 것.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은 사랑의 마음은 모두 1,765장의 연탄으로 변신했다. 전국에서

모인 728통의 엽서와 SNS에서 1,037명의 ‘좋아요’가 모인 결실이었다.

나눔의 열정에 힘을 보태다

권익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권익위 직원들이 직접 연탄 배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밤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과 협의해 연탄 후원은 물론 직원들이 직접 연탄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가 배달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장소는 아직도 연탄을 때는 40여 가구가 있는 성북구 북정마을로 결정됐고, 이날 22명의 권익위 직원들이 연탄 배달 봉사 활동에 나섰다.

드디어 연탄 배달을 시작할 시간. 남자는 물론 여자들도 거침없이 지계를 메고 배달에 나선다. 난생 처음 메 보는 지계에 혹시 연탄이 떨어지더라도 할까봐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딛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받기만 해서 어떡하냐!” 연탄을 짊어진 직원들을 함박 웃음으로 맞아 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직원들이 더욱 힘을 낸다. 창고 입구가 좁아 지계로 들어올 수 없게 되자 두 명이 자발적으로 나서 연탄을 옮기는 일을 전담하는가 하면, 집으로 가는 길이 좁아서 한 명 이상 지나가기 어렵게 되자 지계를 댄 채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전달하는 릴레이까지 벌어진다.

연탄 6장만 있어도 20kg을 훌쩍 넘는데다가 지계까지 더해진 무게, 거기에 구불구불 비탈진 언덕길을 몇 번씩 왕복하다보니 금세 송골송골 땀이 맺힌다. 하지만 쉬는 것도 잠시, 다시 지계를 둘러메고 연탄을 짊어진다. 당차게 ‘하나 더!’를 외치는 목소리에 탄성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난다. 이웃을 생각하는 따스한 국민의 마음과 국민행복을 위한 권익위의 봉사의 정신이 더해진 이날,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나눔의 열정으로 가득한 의미 있는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나트륨 사용을 줄인
'건강음식점' 운영 개선방안

'건강한 식탁'을 위한 건강한 아이디어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 스스로가 아이디어와 개선안을 제안하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다. 나 혼자만의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곳,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 희망과 행복을 키운 사례를 만나보자.

나트륨을 적게 썼다는 '건강음식점'의 허실

"흠, 소금을 적게 쓴다라...얼마나 적게 넣길래?"

'건강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보던 A씨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맵고 짜게 먹는 습관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음식의 질에 신경 쓰기란 쉽지 않은 일. 특히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A씨에게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시인 '건강음식점' 간판은 왠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뿌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이 음식들에 얼마만큼의 소금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적게 넣길래 이런 간판까지 달아주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음식점 어디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없었다.

내친 김에 A씨는 건강음식점의 기준에 대해 검색해봤다. 하지만 A씨가 원하는 정확한 수치나 기준은 찾을 수가 없었다. 건강음식점 선정을 위한 나트륨 사용량 기준도 없었고, 나트륨 함량을 줄인 메뉴가 뭔지, 얼마나 줄었는지를 표시하는 경우도 적었다. 심지어 전체 메뉴 가운데 하나만 나트륨 양을 줄여도 건강음식점으로 선정된다는 것. 왠지 속은 듯한 기분에 A씨는 입맛이 썩었다.

"뉘야, 기왕 간판을 달 거면 제대로 해야지!"

건강음식점 지정 기준 정립과 사후관리 강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의 2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위해 2년 전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소금을 덜 쓰는 음식점에 건강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달아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음식점 지정을 위한 나트륨 사용량 기준이 없고, 한 가지 메뉴만 나트륨 함량을 줄여도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이 나트륨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기준도 없었다. 이를 개선하자는 제안이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기됐고, 이는 바로 식약처로 전달됐다.

식약처는 이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음식점을 지정할 때 나트륨 사용량 기준을 설정해 건강음식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 이후에도 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의 모든 메뉴에 나트륨 사용량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음식점에 나트륨을 줄이는 메뉴를 점차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건강음식점'을 지정하는 대신 '건강메뉴'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더하기

국민권익이 간다 | 글로벌 ACRC | 국민권익 Q&A | 110 행복레시피





찾아가는 청렴교실

미래 우리사회의 청렴, 아이들에 달렸다

한 아이는 수업 말미에 “진솔하게 살겠다, 편견을 버리겠다, 나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선서를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이 수업을 통해 “내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효천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렴교실’ 풍경이다. 교실 속에는 준엄함 대신 활기가, 지루할 틈 없는 즐거움이 넘쳤다.

‘청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콕 박혔어요

‘청렴’이라는 단어는 낯설다. 어른들도 ‘청렴’의 뜻을 잘 알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낱말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두 음절에 받침이 가득 들어찬 이 단어를 발음하노라면 왠지 모를 이물감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런데 하물며 어린이들은 어떨까? 청렴 수업을 시작하며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이 ‘청렴’이라는 단어의 이물감, 낯섦이었을 것이다.

“청렴이요. 청렴이라는 말이 생각나요.”

“청렴이 뭐냐면요. 부패하지 않는 거래요.”

총 8차시로 이루어진 ‘찾아가는 청렴교실’의 6차시 수업까지 들은 어린이들에게 지금까지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광주효천초등학교 5학년 2반의 개구쟁이 우일준, 임도현 학생이 나란히 이같이 대답했다.

“뒤편이? 아 맞다. ‘딜레마’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우리 엄마도 그럴 때 있거든요.”

우일준, 김채영 학생이 덧붙인다. 일준이는 3·4차시 “딜레마 상황 해결하기” 수업이 재밌었던 모양이다. 채영이는 6차시 “세상을 바꾸는 힘, 용기” 수업에서 시청한 ‘엄마의 편견’이라는 영상 속의 엄마와 자신의 엄마를 겹쳐 본 게 분명하다. 3·4차시 수업에서 아이들은 딜레마에 빠진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 받은 후, 그 상황에 자신을 직접 대입했다.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하지?’라는 물음을 고민하고 자신

‘성과만 달성한다면 과정의 부도덕은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사회풍조를 볼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유소년기에 청렴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1 ‘찾아가는 청렴교실’에 참가한 광주효천초등학교 5-2 학생들
2 8차시에 걸쳐 진행되는 청렴교실 수업은 청렴헌법 조문 만들기로 마무리된다

의 생각을 발표하고 또 그 상황을 연기해 보기도 했다. 6차시 수업에서는 ‘엄마의 편견’이라는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인종·여성 편견 등 다양한 편견의 개념과 사례 등을 배우고 토론했다. 그밖에도 ‘찾아가는 청렴교실’은 탁구공 이동하기 게임, 마블 게임, 눈 가리고 표적 맞추기 게임 등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 또는 모의법정 같은 신선한 형식과 접목된 교과가 알차게 포함돼 있었다.

성과만능주의·도덕적 해이, 어릴 때부터 경계해야

한국투명성기구의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87.2%가 ‘학교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현재 초등학교 수업의 윤리 교과에도 청렴의 개념이 따로 실려 있지 않다. ‘성과만 달성한다면 과정의 부도덕은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사회풍조를 볼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유소년기에 청렴교육



청렴교실의 프로그램은 1회성 이벤트를 탈피하여 8주 연속 교육으로 실시,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토론, 체험, 진단, 게임 등 창의적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을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찾아가는 청렴교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01년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투명본부)가 시작했고, 2012년부터는 각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권익위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힘을 보탤다.

청렴교실의 프로그램은 1회성 이벤트를 탈피하여 8주 연속 교육으로 실시,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토론, 체험, 진단, 게임 등 창의적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청렴교육

전문 강사들은 각 8시간의 기본과 심화과정, 각 2번의 참관수업과 보조수업을 거친 뒤 신청 학교에 파견된다. 이날 광주효천초등학교의 5학년 2반 학생들을 지도한 이은희 교사 역시 열두 명의 학생들과 일일이 눈 맞추고 아이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귀 기울이며 청렴의 의미를 쉽고도 다양하게 풀어나갔다. 7차시 '우리학급 청렴헌법 만들기' 단계에 이르자, 지금까지 부지런히 배웠던 개념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립되었다.

"헌법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법이에요. 국회에서 헌법 아래에 있는 여러 법들을 만들죠. 이제부터 우리 반의 '청렴헌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칠판에는 여섯 단어가 큼직하게 쓰였다. 정직·공정·배려·책임·절제·약속. 학생들은 두 명씩 짝지어서 각기 위 여섯 개의 주제에 맞는 두 가지 실천사항, 즉 5·2반의 청렴헌법 조문을 만들기 시작한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5·2반 청렴헌법

"절제가 뭐냐?" 헌법 조문을 만들기에 앞서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꼼꼼한 박나혜 학생. "대한민국, 그 뭐더라... 국민에게 있다. 아, 주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디선가

익숙하게 들어 본 국민교육현장의 첫머리를 읊으며 조문 제정의 아이디어를 찾는 오종길 학생.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장난기 어리게 말하는 김점용 학생과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니?"라고 타박하는 짝꿍 진민정 학생 등 헌법 제정까지 학생들은 활발히 의견을 교환한다. 첫 번째로 '정직'의 헌법 조문 발표 시간.

"거짓말을 하지 말자, 비겁한 짓을 하지 말자." 김채영 학생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손을 번쩍 드는 한 친구. "위대한 사람도 누구나 한 번씩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비겁한 짓은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임도현 학생의 반론에 교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한다. 하지만 헌법은 약속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라는 선생님의 말에 모두 수긍하며 '정직'에 대한 헌법은 곧 가결되었다. 두 번째는 '공정' 테마다.

"여자와 남자는 공평해야 한다, 친구들이 싸울 때 한 쪽 편만 들지 않기." 임현진 학생의 또박또박한 발표에도 임도현 학생은 무언가 석연찮은 모양이다.

"우리 반은 여자와 남자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네 명이나 더 많고요."

순간 여학생들의 시선이 따갑게 임도현 학생 쪽으로 모아진다. "아,

알겠어요."라며 슬며시 꼬리를 내리는 임도현 학생. 설전이 오갔지만 5·2반의 헌법 제정은 순조롭다. 그러나 곧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었고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문제를 일으킨 조문은 바로 '책임' 항목의 "모둠숙제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한 사람에게 떠맡기지 않기"라는 조문. 학생들은 부모님과 약속이 있거나 친척의 장례식이 있을 때 청소를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러면 다들 거짓말을 둘러대고 청소할 사람은 남아 있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뒤따랐다.

"애들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헌법 조문 앞에 '특별한 경우와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넣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 열두 명 학생들의 발표가 모두 끝나자 학생들의 경험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5·2학년 청렴헌법'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마지막 8차시 수업에는, 선생님이 수업 틈틈이 찍은 아이들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고 청렴교실을 끝내며 느낀 바를 자신의 다짐 선언문으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손을 들고 선서를 외치며 선언문을 발표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고 그 다짐 안에 자신만의 고민이 깃들어 있는 듯 보였다. 이 아이들의 진지한 다짐이야말로 보다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청신호가 아닐까.

제1회 행정심판 국제 심포지엄

범아시아 국민권익 향상의 첫 발을 내딛다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행정심판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1월 28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주최하는 ‘행정심판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 것. ‘아시아의 행정심판 제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행정심판 제도 운영국뿐만 아니라 아직 행정심판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인도네시아도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국민의 안전망, 행정심판제도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행정심판을 단일 주제로 하는 첫 국제행사, 제1회 행정심판 국제 심포지엄이 권익위 주관으로 개최됐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다. 행정심판을 통해 결정이 이뤄지면 행정기관은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 소원법 제정과 함께 행정심판제도의 전신인 소원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시대 상황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꾸준한 제도보완과 국민 권리익향상 등으로 행정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 권익구제 기능을 강화하며 발전해 왔고, 이제는 국민에게는 권익을 신속·정확하게 구제해 주는 안전망으로, 정부에게는 행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하는 거울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행정심판을 단일 주제로 하는 첫 국제행사로서,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 제도 운영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참여하고 현재 행정심판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동남아지역을 대표해 인도네시아가 참여했다

- 1 '아시아의 행정심판제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행정심판을 주제로 한 첫 국제행사다
- 2 심포지엄에 참석한 권익위 관계자 및 행정법학회 회원들
- 3 주제발표를 하는 중국 정법대학 라지민 교수
- 4 사회를 맡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



이렇게 발전해 온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의 성과를 다시 한번 짚어 보고 발전방향을 범아시아적으로 논의하고자 이번 행정심판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제도 운영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참여하고 현재 행정심판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동남아지역을 대표해 인도네시아가 참여했다. 한국행정법학회 이경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네 나라의 행정심판제도 운영 현황과 그 발전방향을 상호 소개하고 토론함으로써 네 나라 모두에게 서로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의 행정심판제도를 위해

주제발표와 토론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정훈 교수는 ‘현재 행정법 연구자들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라며 행정심판제도 실시 30년 만에 이렇게 국제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1부 주제발표는 중국 정법대학의 라지민 교수와 일본 총무

성 오즈키 관리관이 이미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아직 행정심판제도가 없는 동남아 지역을 대표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나스루딘 과장이 인도네시아의 권익구제 제도 현황과 지향점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발전성과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각국 발표자들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박수로 화답했다. 이들의 박수소리 속에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담겼다. 바로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안전망인 행정심판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굳건한 마음이다.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특별한 자리가 된 것.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을 소개해 행정한류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권익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발전에 활용하는 한편, 향후 참가국을 다양화하고 주제를 세분화해 국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 눈에 보는 국민권익 주요 사례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1 입학자격요건 미달자가 재학 중 지원받은 보조금 환수 결정은 부당



Case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씨는 2년 전 대학원에 입학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등록금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큰맘 먹고 공부를 시작한 것.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뒤늦게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K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뒤늦게 K씨가 입학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다시 내놓게 된 것이었다.

Solution

K씨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제도로 입학해 등록금의 70%를 지원받았으나 재학 중 입학자격기준 미달이 밝혀져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입학 당시 입학자격요건 확인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확인의무가 있는 대학과 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부정이 있었다고 불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조금 전액 환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 휴가 중 직무명령으로 인한 대민지원작업은 공무로 인정



Case

M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또렷이 기억한다. 20여 년 전 군 복무 시절, 휴가 중에 면장이 주관한 벌초작업에 소속부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참여했다. 그러나 벌초하던 중 튕겨져 나온 비석조각 때문에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었고, 이것이 실명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M씨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됐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M씨의 신청에 대해 '사적행위 중의 상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소속부대 당직사령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벌초작업에 참여한 것이 확실하고 해군본부 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군인의 상이를 이미 공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M씨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가까이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 권익의 수호자로 함께하고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행정심판,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자.

3 재정누수 방지 위한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방지안 마련



Case

어부 A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2012년 볼라벤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은 재난지원금 때문. 그 당시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어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다. 긴박하고 정신 없는 상황이라서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생긴 일일 수도 있었다. 그래도 국가의 돈이 잘못된 곳에 갔다는 생각에 A씨의 마음은 편치 못했다.

Solution

권익위는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급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방방재청과 협업체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후 자체 점검·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4 가출 배우자 '일시 주택소유'는 임대주택 퇴거사유 안 돼



Case

임대주택에서 사는 60대 D씨는 눈 앞이 캄캄했다.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가출한지 10년이 넘어 혼자 노모를 모시고 근근히 살아오고 있던 그였다. 그런데 아내가 가출 이후 2년 동안 빌라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 노모까지 있는 상황, D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Solution

권익위는 D씨의 민원에 대해 정신질환으로 가출한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가출한지 10년이 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 임대주택의 정책목적상 퇴거 처분이 실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내공사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갱신계약을 체결해줄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효도하기 힘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하루 평균 8,600건에 달하는 상담전화는 이어지는 바쁜 와중에도 110 상담사들은 민원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다. 민원인과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는 상담사들의 따스한 마음이 담긴 사연을 소개한다.



새내기 상담원에게 월요일은 무척 힘이 듭니다. ‘제발 내가 아는 걸 물어봐 주셨으면’하고 간절히 바라며 정신 없는 하루를 보내던 중, 조금은 억울한 목소리의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홍삼을 구입했는데, 이 제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걱정이 돼서요. 진품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원인은 큰맘 먹고 부모님께 선물한 홍삼의 진품 여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알아보고 알아본 끝에 좋은 홍삼을 골라 부모님께 드렸는데, 때마침 부모님이 가짜 홍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보시고 가짜 홍삼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민원인의 부모님 입장에서서는 아마 염려되는 마음에 물으셨겠지만, 어렵게 선물한 민원인의 입장에서서는 상실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을 보니까 한국인삼공사의 제품이 아니면 다 가짜 홍삼 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정식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고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믿어도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규격에 맞기 때문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법을 어긴 사실

이 적발돼서 처벌을 받은 제품이나 업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되니까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있었군요.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니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먹어봤을 인기 건강식품입니다. 워낙 면역에 좋다, 기운나게 해준다 하니 입소문으로 알음알음 구매하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도 많고, 이와 관련된 보도나 소문이 많은 편이지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신고, 등록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서 부적합한 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판매자도 사람이 먹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기에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겠지요.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선물한 홍삼을 두고 가짜이니 진짜이니 하는 쓸쓸한 실랑이가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효도는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나누기

타박타박 힐링여행 | 감성충전소 | 스포츠 인사이트 | 건강 다이어리 |
청렴 오디세이 | 꼭 읽어주세요!





순백의 계절 겨울이다. 겨울잠에 들어가는 다람쥐가 있는 반면 오로지 겨울만을 기다려온 사람들도 있다. 추위에 움츠리기보다 겨울 한가운데 서서 당당히 겨울과 맞서고 싶은 당신에게 설국열차 탑승권은 이미 발급되었다. 눈(雪)이 있어 눈(目)이 즐거운 겨울여행지 베스트 3곳을 소개한다. 몸 구석구석 윤택유를 바르고 발목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거닐어 보자.

겨울여행지 베스트 3선 -
태백, 평창, 무주

눈이 있어 눈이 즐거운 곳, 설국으로 초대

태백산 트레킹과 눈꽃축제

문의
태백산도립공원
033-550-2741/2742,
<http://tbmt.taebaek.go.kr>

태백산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들어선다. 태백산은 경상북도 봉화군과 강원도 영월군 그리고 태백시를 경계로 한 해발 1,567m의 높은 산이다. 하지만 유일사매표소에서 산행을 시작할 경우 해발 850m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산행거리는 같은 고도의 다른 산에 비해 길지 않은 편이다.

일출산행은 가장 안전하면서 짧은 시간에 정상을 밟을 수 있는 코스가 좋다. 어둠을 뚫고 가야 하는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낮보다 쉽게 지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일사 코스가 안성맞춤. 원점회귀를 하면 4km 정도 되는 거리에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산행길이다.

유일사 매표소를 지나면 땅 넓은 줄은 모르고 하늘 높은 줄만 아는 전나무 군락지를 만난다. 이어 등산로를 따라 2.3km 구간을 씩 없이 올라가면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을 산다'는 주목 군락지다. 신비로운 주목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일출은 분명 태백산 트레킹의 백미이다.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옷을 뽕뽕 벗어버렸지만 칼바람 맞으며 의연하게 서있는 그 모습이 대견하기 짝이 없다. 주목 뒤로 장엄한 산 능선이 춤을 춘다.

남쪽으로 400m 거리에 돌로 성을 쌓은 'ㄷ'자 모양의 천제단이 있다. 천제단에서 바라보는 해돋이는 손꼽히는 명소로써 소문이 자자하지만 살을 에는 예리한 칼바람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 천제단에서 당골로 내려가는 길은 수월하다. 단종비각을 지나 반재 삼거리까지 완만한 하산길이 이어진다. 이 구간은 등산용 방석을 깔고 천연 눈썰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2015년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태백산눈축제와 태백산썰매장이 2월 말까지 개장한다.





평창에 눈이 오면,
선자령 트레킹과
대관령 눈꽃축제

문의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033-330-2742

설원과 풍력발전기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광을 연출하는 선자령은 해발 1,157m의 높은 고원에 위치하고 있다. 들머리인 옛 대관령휴게소가 해발 820m인 점을 감안한다면 고도차는 불과 300여m 정도이다. 오전 7시경이 되면 선자령 들머리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선자령은 지역적인 특성상 수도권에서 많이 찾는 트레킹 코스다. 특히 눈 온 다음날에는 산악회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구름처럼 몰려든다. 선자령 정상으로 가는 길은 옛 대관령휴게소를 시작으로 국사성황당을 지나 새봉전망대로 가는 길이 수월하다. 다른 코스는 양떼목장을 지나 풍해조림지, 샘터로 가는 구간으로 야트막한 언덕을 올라 왼쪽으로 양떼목장을 무료관람하며 걸을 수 있다. 어느 구간을 먼저 걷든지 순환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최종거리는 10km 안팎으로 비슷하다. 대관령양떼목장은 2월 말까지 눈을 넉넉하게 구경할 수 있다. 대관령 정상에서 태백산맥의 위용과 목장 산책로의 아기자기한 모습을 조망하는 맛은 겨울여행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다. 광활한 눈밭을 바라보고 있다면 알프스의 어느 목장에 온 듯한 착각에 신들린 듯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된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양 건초주기 체험을 해봐도 좋다. 한편 매년 1월 중순에 평창군은 '대관령눈꽃축제'를 횡계면에서 개최한다.

덕유산국립공원의
환상 눈꽃터널

문의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사무소
전화 063-322-3174,
<http://deogyu.knps.or.kr/>

덕유산국립공원은 곤돌라의 편리함 때문에 겨울이면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 곤돌라에서 내려 향적봉까지 30여 분만 올라가면 정상을 정복한 셈이다. 점심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하니 서두르는 게 상책이다. 곤돌라에서 내려서는 순간 입이 딱하고 벌어진다. 설천봉의 풍광이 압권이다. 그칠 것 없는 전망이 감동으로 물결친다. 먼발치 산 능선의 춤사위가 예상롭지 않다. 발 아래에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활주로를 질주하듯 내달린다. 새파란 하늘까지 더해진다면 상상초월이다. 파란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구름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같고,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눈꽃은 다이아몬드보다 영롱하고 순결해 보인다. 설천봉을 지나면 약간의 오르막이다. 이 고개에 올라서는 순간 지금까지 봐왔던 눈꽃은 모두 별 볼일 없음을 깨닫는다. 최고의 눈꽃이 향적봉으로 가는 길에 화사하게 피어난다. '덕유산 환상눈꽃터널' 구간이다. 눈꽃터널은 웅장하다가도 때로는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변한다. 변화무쌍한 자연의 창조물에 감탄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덕유산 최고봉 향적봉에 도착한다. 겹겹의 산맥들이 발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린다. 세상의 중심에 올라선 기분이다. 그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윙윙윙' 바람소리가 영화 <닥터 지바고>의 배경음악처럼 웅장하다. 향적봉을 지나면 중봉이다. 중봉으로 향하는 길은 고산지대를 걷는 기분이다.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걷기에 무리가 없다. 다만 강한 바람이 눈 앞에서 어른거리고 있어서 앞을 분간하기 힘들다. 스틱을 이용해 몸의 중심을 잡고 머리를 숙인 채 전진한다. 설천봉에서 아기자기한 눈꽃터널이 묘미였다면 중봉은 강직한 남성을 닮았다. 반면 향적봉 대피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바람을 피할 수 있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 덕유산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이곳에서 밤을 지새는 이들도 많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속
그곳을 찾아

전설을 가진 농촌 마을 여행

눈만 뜨면 휴대폰 게임으로 먼저 손이 가는 아이들. 전래동화 속 우리 옛날 이야기가 낯선 아이들에게 이번 겨울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진짜 '이야기 마을'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여행이 끝나면 동화 속 이야기는 아이들의 추억 속에서 살아 움직일 것이다.



열 가지 '이야기 마을' 여행과 이색 체험

우리네 시골 마을에는 으레 한두 가지쯤 존재하는 오래된 장승이나 나무, 바위 등에 얽힌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구수한 입담과 함께 버무려져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재생되곤 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각 지역 농촌마을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았다. '이야기 마을 여행'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여주 서화마을, 강원도 태백 구문소마을, 전남 순천 용오름마을 등 열 개 마을을 선정,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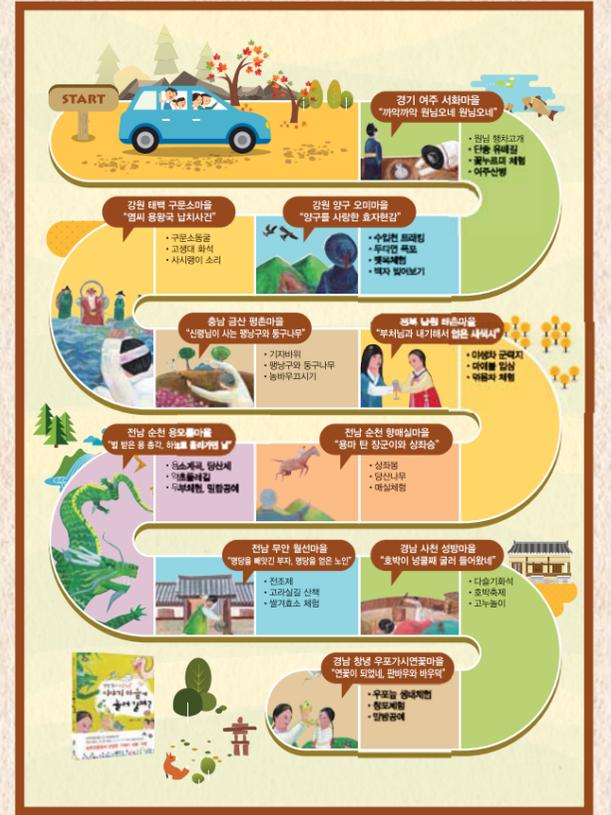
무려 육백 년 전부터 사람이 모여 살던 유서 깊은 용오름마을(전남 순천)에는 마을 이름에도 등장하는 용(龍)에 대한 전설이 내려온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는 용물소가 바로 전설의 배경이다. 하늘로 승천하려다 벼락을 맞고 떨어져 바위가 되었다는 비운의 용이 이야기가 전해진다. 전설과 함께 다시 보는 바위는 기이한 생김새로 신비로움을 더한다.

평촌마을(충남 금산)에는 무형문화재인 '농바우끄시기'가 있다. 장롱처럼 생겼다 하여 농바우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가뭄이 들면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드렸다. 짚으로 끈 두툼한 새끼줄을 농바우에 걸어 아래로 잡아 당기는 이 기우제는 특이하게도 여자들만 지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농바우끄시기를 하며 불렀던 노래는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4억 년 전 생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마을도 있다. 강원도 태백의 구문소마을에서는 고생대 시기의 다양한 생물 화석을 관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십 억 년 동안 땅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어떻게 쌓여 왔는지 알 수 있는 지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지질학자들에게 지질학의 보물창고라 불릴 정도다. 구문소와 구문소 주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구문소 주변에 위치한 고생대자연사박물관도 함께 가볼 만하다.

마을의 전설, 전래동화로 만들어져 더욱 흥미진진

이외에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10개 마을의 이야기와 체험 프로그램 등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지역의 전설이 전래동화로 각색되어 『전설 찾아 두근두근, 이야기 마을에 놀러 갈래』(윤승일 저, 고즈넉출판사)라는 책으로 출판됐다. 용궁에 끌려가 재판을 받고 풀려난 효자 이야기, 가시연꽃으



로 다시 태어난 판바우와 바우덕 이야기, 용마를 타고 왜적을 무찌른 장군 이야기, 심술쟁이 며느리가 명당을 차지한 이야기 등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열 개의 전설이 친근한 삽화와 함께 구성되었다. 책에는 동화의 소재가 된 바위나 연못, 나무 등의 실제 사진도 함께 실어 마을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증폭시켜 준다. 전래동화 속 마을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꼼꼼한 길 안내도 잊지 않았다. 책으로만 상상으로만 접하던 전래동화가 실제 배경이 된 마을 여행을 통해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다른 전래동화의 차이점이다.

그뿐 아니다. 가시연꽃마을의 우포늪 생태 체험, 평촌마을의 금강 천렵 체험, 성방마을의 호박따기 체험 등 각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민속 행사, 축제, 주변 여행지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마을 별로 특성을 살린 체험 보고서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책 한 권 사두고 마을을 찾는다면 더욱 유익한 여행이 될 것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한국 선수들

뜨거운 유럽 축구, 뜨거운 코리안 유럽파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끝났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도 끝났다. 그리고 2014 K리그도 곧 끝난다. 그러나 세계는 넓고 축구는 많다. 특히 유럽 곳곳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축구가 뜨고 진다. 추운 겨울을 뜨겁게 만드는 유럽 축구, 그 속에는 우리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코리안 유럽파가 있다.



관심 집중, 독일 분데스리가

독일은 축구의 나라다. 물론 유럽 대부분 나라가 축구에 죽고 못 살지만 독일인들의 축구 사랑은 특히 대단하다. 지난 수년 간 한 시즌 평균 관중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독일 분데스리가였으며, 한 해 분데스리가 소속 팀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총 합이 3조 원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잉글랜드가 '축구 중가'라고 으스스대고 스페인이 호날두와 메시를 데리고 있다며 으쓱거려도 독일이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자국민의 뜨거운 축구 사랑과 별개로 독일 분데스리가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잉글랜드나 스페인 등에 비해 어깨를 펴지 못했다. 나라 안 분위기는 뜨거웠으나 나라 밖 성적이 신통치 않았던 탓이다. 이는 스타 선수들의 행선지를 독일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했고, 자연히 분데스리가는 스타 기근과 그로 인한 성적 부진으로 유럽 무대에서 힘을 잃어갔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독일축구협회를 중심으로 개혁 의지를 불태웠고, 그 결과 지금은 유럽 축구의 중심이라 해도 될 만큼 막강한 세를 갖추게 됐다.

돌풍의 중심 손세이셔널

2014년 현재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프로 축구 리그인 독일 분데스리가, 그곳에는 자랑스럽게도 꽤 많은 우리 선수가 뛰고 있다. 명문 레버쿠젠 공격 선봉 손흥민, 신흥 강호 도르트문트의 차세대 킬러를 노리고 있는 지동원, 전통의 팀 마인츠 05에서 함께 뛰는 구자철 · 박주호, 기적의 팀 아우크스부르크의 센터백 홍정호 등이 분데스리가를 누비고 있는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이다. 모두 저마다 탄탄한 입지를 쌓고 또 쌓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빛나는 것은 레버쿠젠 에이스 손흥민이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의 영어 단어 센세이셔널(Sensational)에서 따온 '손세이셔널(Sonsational)'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손흥민은, 레버쿠젠 이적 두 번째 시즌인 올해 팀 에이스 자리까지 넘볼 만큼 성장했다.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공간 침투, 여기에 고감도 슈팅력까지 무장한 그는 독일을 넘어 전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공격수다. 침착함과 경험만 좀 더 쌓는다면, 머잖아 한국 축구도 세계적 스트라이커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전에 비해 세가 많이 약해졌다. 무리한 투자로 클럽들 재정 상태가 허약해졌고, 스페인과 독일 등 다른 나라에 견제에 밀려 힘을 많이 빼앗긴 것이다. 아울러 박지성 · 이영표 등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선수들마저 줄줄이 무대를 이탈하면서 우리들의 관심도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성용 · 윤석영, 새 중흥 이끈다

그러나 여전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많은 한국인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곳이다. 아무래도 박지성 · 이영표 등 선배 코리안 프리미어리거들이 남긴 흔적이 뚜렷해서다. 전에 비해 활약하는 선수 숫자도, 그 활약의 크기도 많이 줄었으나 다시 중흥을 위해 뛰는 이들이 있다. 스완지 시티의 중원 사령관 기성용과, 오랜 기다림을 이겨내고 도전을 시작한 퀸스 파크 레인저스의 윤석영이 그 주인공이다. 두 선수는 현재 유일한 코리안 프리미어리거이기도 한데, 비록 돌발에 되지 않지만 알토란같은 활약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기성용은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리그 1호 골을 쏘아 올리는 등 전 유럽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에도 꾸준한 활약으로 스완지 시티는 물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팬들까지 사로잡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리그인 챔피언십에도 두 명의 한국 선수가 있다. 이청용 · 김보경이다. 이중 이청용은 올해도 볼튼 중심 선수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힘 빠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05년, 그러니까 박지성이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무대를 옮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입성한 그해부터 영국은 우리에게 상당히 가까운 나라가 됐다. 물리적 거리가 셀할 수 없을 만큼 멀지만, 매일 밤 안방으로 전달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가까운 이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그였다는 점도 우리들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잉글랜드는 자국 프로축구를 세계에서 가장 융성하게 만들기 위해 1992년 리그 명칭을 개편하는 등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동했는데, 이게 적중해 단숨에 유럽 최고의 리그로 도약했다. 그러나 2014년



건강하고 맛있는
겨울 간식 레시피

지루한 겨울, 입맛 달래주는 건강 간식

기나긴 겨울밤을 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간식. 심심한 입을 달래주는 것은 물론 겨울밤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만만찮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는 간식거리는 칼로리가 높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한 식재료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겨울 간식 레시피를 소개한다.

담백하고 몸에 좋은 버섯피자

버섯은 미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식품으로 손꼽힌다. 버섯의 쫄깃한 식감을 살려 피자를 만들면 어른과 아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간식거리가 된다. 청양고추나 파프리카를 넣으면 산뜻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버섯피자(2인분 기준)
준비물:

느타리, 표고, 양송이 등 각종 버섯 각 30g,
또띠아 지름 15cm 4장, 청양고추 1개,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3큰술, 모짜렐라 치즈 50g (양념 :
간장, 설탕, 다진마늘 각 1큰술, 맛술 1/2큰술)

- 1 느타리와 표고버섯을 깨끗하게 씻어 손으로 가늘게 찢고, 양송이 버섯은 동글게 잘라준다.
- 2 손질해 둔 버섯에 청양고추나 파프리카를 다져 넣고 양념해 살짝 볶는다.
- 3 또띠아 2장을 준비해 또띠아 사이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겹친 다음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적당히 발라준다.
- 4 또띠아 위에 볶은 재료를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오븐에서 약 15~20분 구워준다.



특별한 겨울 파티, 굴 시폰 케이크

겨울이 오면 저절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떠올린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케이크보다 직접 만든 케이크로 특별한 겨울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겨울철 건강간식으로 인기 있는 굴로 시폰 케이크를 만들어 보자.

굴 시폰 케이크(4인분 기준)
준비물:

박력분 120g, 베이킹파우더 5g, 굴 작은 것 3개즙
50cc, 식용유 60cc, 달걀 흰자 4개와 설탕 30g, 달걀
노른자 4개와 설탕 40g, 시폰 틀

- 1 달걀 흰자를 살짝 풀어준 뒤 설탕 30g을 두 번에 걸쳐 넣고 섞어 머랭을 만들어 준다.
- 2 굴을 믹서기에 갈아 체에 걸러 즙을 낸다.
- 3 달걀 노른자에 설탕 40g을 넣어 뽀얀 색이 나도록 휘핑한 후 굴즙과 식용유를 넣고 다시 섞어준다.
- 4 체에 내린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를 가볍게 섞고 만들어 놓은 머랭을 가볍게 섞어준다.
- 5 시폰 틀 안쪽에 물 스프레이를 뿌린 후 반죽을 붓고 젓가락으로 저어 기포를 제거해준다.
- 6 오븐에 넣고 45분 정도 구워준다.



건강한 재료만 모은 버건 브라우니

쿠키나 빵은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다. 하지만 버터와 설탕 등 칼로리가 높고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버터와 달걀 같은 동물성 재료와 설탕을 줄인 브라우니를 소개한다.

버건 브라우니(6인분 기준)
준비물:

다크 초콜릿 140g, 설탕 80g, 카놀라유 100ml, 중력분
100g, 아몬드 가루 40g, 베이킹파우더 1/4큰술, 소금
1/3작은술, 다진호두 60g, 바닐라 에센스 1/2큰술,
바나나 퓨레 1/2컵, 브라우니 틀, 유산지

- 1 다크 초콜릿을 잘게 잘라 설탕과 함께 중탕해 녹인 후 카놀라유를 넣고 저어준다.
- 2 중력분, 아몬드 가루, 베이킹파우더, 소금을 함께 체에 친 후 다진 호두를 넣고 섞는다.
- 3 두 가지를 섞은 후 바나나 퓨레와 바닐라 에센스를 함께 넣고 저어준다.
- 4 브라우니 틀에 유산지를 깔고 반죽을 부어 오븐에서 30분 정도 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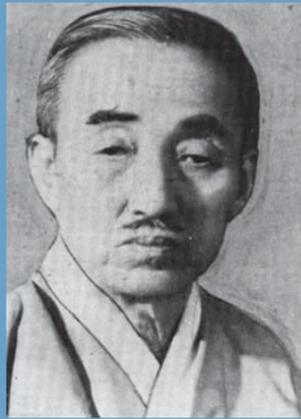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공직자의 표상, 청렴의 아이콘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을 지칭하는 수식어는 수없이 많다. 독립운동가, 소신있는 법관, 청렴한 공직자 등등... 그가 타계한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수식어로 남아 깊은 울림을 주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가 평생 지켜온 청렴과 정직은 법조계를 넘어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시대, 깨어있는 지식인으로 서다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은 사간원 관료였던 아버지 김상희와 어머니 장흥 고씨 사이에 삼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가 10살이 채 되기 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잇달아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기자 할머니는 그를 위해 집안에 독서당을 만들어준다. 그 덕분에 한문공부와 다방면의 독서에 전념할 수 있었다. 나중에는 친구와 함께 학교를 만들어 강사를 초빙하여 신학문 영어, 일어, 산수 등을 배우기도 했고 미국독립사, 이태리독립사, 월남망국사 등의 역사서를 읽으며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중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고 그는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국권회복운동에 동참하게 되는데, 순창의 일본인 관청을 습격하는 등 적극적인 의병투쟁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의병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 이후로 계몽운동과 학업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자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일본대학의 법

과 청강생이 되었는데 법조인으로서 꿈을 키우게 된 첫 걸음인 셈이다. 그가 변호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남달랐다. 훗날 그의 회고에 따르면 일제의 박해로 신음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고, 만일 변호사가 된다면 아무리 극악한 일본경찰이라도 변호사를 쉽게 폭행하거나 구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약자를 위한 인권옹호와 정의구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업으로 변호사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변호사로 개업한 뒤, 조선변호사협회 회장과 조선인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3·1운동 사건을 비롯하여 광복단사건, 105인사건, 흥사단사건, 안창호사건 등 매년 100여 건에 달하는 변론으로 독립투사 구출에 전력한다. 또 일제가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보안법, 치안유지법, 신문지법 등과 맞서 싸우며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변호하고 그들의 가족도 돌보는 등 그 자신도 독립운동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하며 민족해방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청렴과 당당함으로 본을 보인 삶

조국의 해방을 맞이하며 그는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건국운동에도 선봉에 서게 된다.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법 질서 확립에 크게 공헌했다. 친일파 처벌 요구와 이승만 정권의 장기 독재정치를 비판하며 부정부패한 정권을 교체하자며 국민들에게 호소했고, '부정선거는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기고하여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다. 1957년 퇴임사 중에서 그가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만 봐도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짐작케 한다.

이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강직하고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었던 그가 평생을 지키려고 애썼던 또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청렴'이다. 그에 얽힌 유명한 일화들이 있다. 결재용 도장이 부러졌는데 새로 사지 않고 퇴임 때까지 반토막 난 도장을 그대로 사용해서 직원들

이 애를 먹었다고 한다. 또한 공관 화장실에는 손바닥보다도 더 작게 자른 신문을 화장지로 썼으며, 잉크병이 얼어붙을 정도로 덜덜 떨리는 추운 날씨에도 영하 5도가 되기 전에는 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록을 먹는 공직자에겐 청렴이 우선이다'라는 신념 하에 국산품 애용은 물론 '온 나라가 일자리가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허다한데 비록 적은 보수라도 국록을 먹는 우리가 불평하면 안된다'며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까지 돌려보내며 법관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솔선수범 하였다. 그의 이러한 청렴함과 정직함은 지금까지도 모든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공직자를 넘어 우리의 삶에서 모두가 배워야 할 정신이다.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

월금처럼 월세지원 받는 '주거급여'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전세금 급등에 따른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전세값이 치솟고 은행 금리인하 등으로 주택보유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세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월세 세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돕고자 정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주거비 부담 훌쩍 덜어주는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방안으로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는 2015년에 선정될 예정이며 월세대출금리는 연 2%,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할 계획이고 720만 원 한도로 대출한 뒤 3년 유예기간 후에 상환을 하도록 유도한다. 지원규모는 총 500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7,0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LH 전세임대의 보증부 월세로 사는 세입자들을 위해 지원금리를 인하한다. 빌리는 보증금액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하여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재 2%에서 2천만 원 이하는 1.0%,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는 1.5%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하나로 통합해 소득수준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화시킨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해당되고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며,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금리 1%p를 추가로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납입 보증 범위를 9개월에서 24개월 분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의 등급을 확대하며 사회취약계층의 보증료 30%를 추가 할인할 계획이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디딤돌대출을 마련해 1년 한시적으로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해준다.

월세 불안지역에 장기 임대주택도 집중 지원

끊임없이 치솟는 전세금과 맞물려 가중되는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세입자의 부담감은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내년 말까지 1만 3,000가구 더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LH의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올해 3,000호와 내년 1만 호정도 전·월세 불안지역에 추가로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 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임대 시 향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고, 20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의 공동출자 방식의 공공 임대리츠를 5만 호에서 6만 호로 1만 호 확대한다.

준공공임대는 세제 혜택과 건축비 지원을 받는 대신 연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다세대나 연립을 공급하는 경우, 현재 4층인 층수 제한을 5층으로 완화하고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임대기간종료 후에는 일정 기준에 합당한 주택을 2년간 한시적으로 LH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2015년에는 제한적으로 준공공임대 매입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도 인하여 줄 방침이다. 다세대, 연립 건설자금을 시중금리 3.8%-4.0% 수준으로 인하고,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이 될 경우 추가로 금리를 1%p 인하한다. 이같은 정책이 부족한 전·월세 수급에 탄력을 주는 방침이 되길 기대해 본다.

News & People

2014. 11+12

국민행복제안 민·관 소통 워크숍 개최



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범정부 제안창구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권익위가 국민 100명과 공직자 100명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월 25일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 등 제안인들과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만나는 '행복의 조건, 국민행복제안 민·관 소통 워크숍'을 열었다.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은 전문가와 국민 총 300명으로 구성되어 제안처리 모니터링, 사장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재평가, 공동제안 제출 등을 통해 제안문화 확산과 우수제안의 정책반영을 적극 모색하는 제안활동집단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책설계 및 개발과정에서 국민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 확대재생산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권익위는 충분히 실행해 볼 만한 창의적인 제안들이 묻히지 않도록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 등과 적극 협업하여 국민행복제안센터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성보 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지난 10월 27일에서 2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사회에 아시아 지역이사로 참석했다. 세계옴부즈만협회는 1978년 설립해 전 세계에 옴부즈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91개국 186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과 파키스탄, 태국 등 10개국 16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이성보 위원장은 현재 아시아 지역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보 위원장은 비엔나 소재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청사에서 베버리 웨컴(Beverly Wakem) 세계옴부즈만협회장과 귄터 크라우더(Gunther Krauter) 사무총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을 심의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 옴부즈만 기관의 장으로서 전 세계 옴부즈만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익위, UNGC '한·영 반부패 세미나' 후원



권익위는 유엔 글로벌컴팩트(UNGC) 한국 협회가 개최하는 '한·영 반부패 세미나'를 후원했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한·영 반부패 세미나'는 '윤리경영의 재발견: 정책에서 기업문화까지'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약 70여 명의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했다. 개막식에서 박진영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기업의 부패방지 적극 참여를 당부하는 동시에 권익위의 지원을 약속했다.

'2014 생명존중포럼' 세미나 개최



권익위는 지난 11월 3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권익구제 강화방안'을 주제로 '2014 생명존중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왕따·폭력·자살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법·제도 관련 학계와 정부, 민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권익위는 지난 11월 5일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에 나섰다.

양주시에서 다문화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7,345명의 외국인 등록자가 있는 양주시에 대해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연장, 재고용, 임금체불, 산재보상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해 출입국 관리분야와 노동분야 전문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활동을 펼쳤다.

권익위, 범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권익위는 지난 11월 26일 국민과 가장 잘 소통했다고 생각되는 최고의 정책사례를 선정하는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사례는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로,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이 확산되는 조짐이 있을 때 민원 양상을 해당 기관에 사전 제공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올 3월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40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경보발령 이후 해제까지의 지속된 기간이 평균 2.5주로, 과거 유사 민원의 지속기간 5.2주에 비해 절반 이하로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Quiz

아래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초성퀴즈의 힌트는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힌트 단어가 숨어있는 페이지를 찾아보고, 힌트 단어의 굵게 표시된 글자를 모아 초성퀴즈를 맞춰보세요!

ㄱ ㅁ ㄱ ㅅ

Hint
 4P 큰 제목 'ㄱㅁㅎㅂ' 10P 작은 제목 'ㅁㅇㅎㅅ'
 14P 첫 번째 소제목 'ㄱㄹ' 28P 큰 제목 'ㄱㅁㄱㅇ'

권익위가 2014년 12월 세종정부청사로 이전합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화 : 044-200-7075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전통시 장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마감은 12월 29일(월)입니다.

지난호 정답
대표번호 (대중, 쉼표, 번다, 보호)

지난호 당첨자
 김혜선 (광주시 북구), 박정식 (충북 제천시), 양서희 (전북 장수군), 이경덕 (부산시 부산진구), 마이진 (창원시 진해구)

Review

<p>김혜선 (광주시 북구)</p> <p>은행에 비치되어 있는걸 보고 구독신청을 했어요. 읽다보면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순수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국민권익〉의 포인트는 독자엽서를 보내면 연탄 한 장이 기부되는 이벤트 아닌가 싶네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 일빠로 엽서 보냅니다!</p>	<p>박정식 (충북 제천시)</p> <p>‘어르신들의 작은 바람’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힘없는 어르신들의 전화도 허투루 하지 않고 응대한 상담사분의 따스한 마음이 진정함 ‘국민권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p>	<p>양서희 (전북 장수군)</p> <p>김천 직지사 템플스테이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천년 고찰에서 우리 가족도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네요. 고요와 명종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 속에 쉼표 하나 찍고 오렵니다.</p>	<p>이경덕 (부산시 부산진구)</p> <p>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뿌듯합니다. 더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p>	<p>마이진 (창원시 진해구)</p> <p>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과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서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p>
--	---	---	--	--



야근 때문입니다

도시의 야경이 화려할수록 가정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수요일은 정시퇴근으로 가정의 불을 밝혀주세요.

